

‘K-뷰티’ 올라탄 제약사들... 브랜드 성적표는 ‘극과 극’

대원제약 자회사, 뷰티실적 부진
‘센텔리안24’ 해외 수출 332% ↑
한미약품, ‘아데시’ 공식 론칭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추가적인 수익 창출원을 확보하기 위해 뷰티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브랜드별 허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국제약은 더마 뷰티 브랜드 ‘센텔리안24’를 앞세워 미국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은 최근 신규 브랜드 공개로 속도를 내는 반면 과감한 인수합병으로 기대감을 높였던 대원제약은 ‘뷰티 부진’ 개선에 나선다.

1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뷰티를 새 성장 축으로 세운 가운데 연이은 인적 쇠신을 단행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이날 에스디생명공학 신임 대표로 김해원 전(前) 씨엠에스랩 상무가 합류했다고 밝혔다. 김해원 신임 대표는 아모레퍼시픽, 네오팜, 씨엠에스랩 등 국내 뷰티 기업에서 26년 경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제약은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 국내외 영업 등 실질적인 매출을 일으킬 성



미국 ‘틱톡샵 K-뷰티 콜렉티브’에 참가한 센텔리안24.

장 포트폴리오를 김 신임 대표에게 맡긴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근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뷰티 사업 구원투수로 외부 전문가를 확충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원제약은 지난해 11월에도 백인영 헬스케어사업본부장을 에스디생명공학 신임 대표로 전격 선임했다. 대주주 차원의 책임 경영을 강화해 시장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였다.

백인영 대표는 과거 대원헬스케어 인수



동아제약 ‘파티온’의 포도당 하이드로 액티브 세럼.

후 통합 과정을 종결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중점을 둔 사업 전략을 펼친 바 있다. 에스디생명공학 역시 백인영 대표 체제에서 급한 불을 끄며 조직 재정비와 내실 다지기에 집중해 왔다.

2023년 12월 회생 절차를 밟던 에스디생명공학의 경우, 대원제약이 인수해 2024년 2월부터 자회사로 편입시켰으나 대원제약의 화장품 사업은 반등하지 못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은 외형 축소와 수익성 악화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0억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손실 11억 원에 이어 적자다.

뷰티를 중심으로 토탈 헬스케어 사업을 안착시킨 동국제약의 성적표는 대원제약의 잔혹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화장품 사업을 포함한 동국제약 헬스케어 부문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동국제약의 헬스케어 매출은 지난해 3164억원을 올리며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해당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13.9% 수준이다.

특히 핵심 뷰티 브랜드 ‘센텔리안24’는 글로벌 수출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32%라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미국 뷰티 편집숍 알타 뷰티 등에 입점하는 등 현지에서 브랜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동국제약이 거대한 매출 불륨을 앞세워 격차를 벌이며 달아나는 상황에서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도 뷰티 영토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동아제약은 국내 대표 헬스앤뷰티숍 C

J올리브영 등에 더마 화장품 ‘파티온’을 내놓는 등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한다. 여드름 흉터 치료, 피부 재생 등 기존 제약 기술 노하우를 화장품에 이식한 고기능성 제품군으로 차별화를 꾀한다.

2023년 132억원 수준이던 파티온 연간 매출은 2024년 213억원, 2025년 246억원 등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63억원의 매출을 냈다.

한미약품도 최근 고급 뷰티 브랜드 ‘아데시’를 공개하며 대전에 가세했다. 특히 고객과의 접점을 직접 확보하기 위해 공식 온라인몰도 열었다. 공식몰을 통해 아데시가 추구하는 피부 과학의 가치를 전하는 동시에 향후 미백, 주름, 탄력 등 피부 고민별 맞춤형 제품을 순차적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제약 업계 한 관계자는 “메가 히트급으로 브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본다”며 “브랜드가 독자 전환함으로써 각 기업의 사업 구조 내에서 이너뷰티나 건강기능식품 등과 유기적인 시너지를 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mlee236@metroseoul.co.kr



‘원씽’ 품은 애경산업... 화장품 비중 키운다

종료보고서 공시 등 합병절차 마무리
2028년 화장품 매출 비중 50% 목표

애경산업이 화장품 사업에 중점을 둔 성장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애경산업은 자회사 ‘원씽’을 흡수합병하고 지난 15일 합병등 종료보고서를 공시하는 등 모든 합병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병은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진행돼 별도의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승인을 통해 완료됐다. 이와 관련 채권자의 제출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뤄졌고 6월 12일을 합병기일로 해 흡수 합병 절차를 종결했다.



스킨케어 브랜드 ‘원씽’ /애경산업

원씽은 애경산업이 2022년 인수한 스킨케어 브랜드다. 이번 원씽 흡수합병 이후

애경산업은 원씽을 포함한 스킨케어 브랜드 전반에 대한 포트폴리오와 중장기 성장 로드맵을 점검한다.

특히 브랜드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씽의 경우에도 향후 브랜드 정체성을 재정립한다.

애경산업 측은 “원씽은 단순 성분 중심 브랜드에서 핵심 성분에 집중한 스킨케어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브랜드 대표 성분인 병풍을 중심으로 제품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올러 애경산업은 최근 화장품 사업 조직을 세분화해 스킨케어 사업부를 신설하고 오는 2028년 화장품 매출 비중 50% 확보 등을 목표로 세웠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근육 증진 비만치료제 연구 발표

미국당뇨병학회서 선별

한미약품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미국당뇨병학회(ADA 2026)에서 두 번째 근육 증가형 비만 신약인 ‘LA-MSTN(HM500197)’을 처음 공개하며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학회에 참석한 전세계 비만대사 분야 연구자와 유수의 기업 관계자들은 신개념 비만치료제 HM17321과 HM500197의 개발 전략과 차별화 포인트, 전임상 연구 결과 등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발표 이후에는 향후 개발 로드맵과 사업화 전략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별도 미팅을 요청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 ‘뱀타이드’ 기반 HM500197은 마이오스타틴(myostatin)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도록 설계된 골격근 중심의 지방을 증가시키는 ‘차세대 근육 증진 치료제’다. 항체 기반 약물과는 달리 동일한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이선명 파트장(선임연구원)이 7일(현지시간) 미국당뇨병학회(ADA 2026)에서 세계 첫 근육 증가 비만치료제 HM17321의 주요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모달리티의 인크레틴 계열 치료제와 병용 또는 복합제 형태로 개발이 용이하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HM500197이 시험관(in vitro) 연구에서 항체 기반 근육 보존 약물인 비마그루탐(bimagrumab)과 유사한 수준의 마이오스타틴 억제 활성을 나타내면서도 비표적 사이토카인에 대한 억제 활성은 관찰되지 않아 우수한 마이오스타틴 선택성을 나타낸 결과를 발표했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제약, 베그젤마·고텍스 가치 조명

간질환 국제학술대회 참가

셀트리온제약은 11~1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간질환 국제학술대회 ‘더 리버 위크(The Liver Week 2026)’에 참가해 진행성 간암 및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베그젤마’와 간장질환 용제 ‘고텍스’를 주제로 학술 강연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셀트리온제약은 이번 리버위크에서 베그젤마와 고텍스를 주제로 각각 런칭 심포지엄과 조찬 포럼을 운영하며 의료진에게 제품의 임상적 가치 및 치료 현장 활용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베그젤마 세션은 임상 결과와 의료 현장 사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간질환 치료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바이오시밀러의 가치를 소개했다.

베그젤마는 베바시주담 성분의 바이오시밀러로, 전이성 직결장암을 비롯해 상

피성 난소암, 원발성 복막암, 자궁경부암 등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개정을 통해 아테졸리주담과 베바시주담 병용요법의 급여 기준이 반영되면서, 간세포성암 환자 치료에서도 주요 치료 옵션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베그젤마 런칭 심포지엄에는 ‘베그젤마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경북의대 탁원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울산의대 정성원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바이오시밀러의 개요와 정의, 장점 등을 알리고, 베그젤마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간암에서의 실제 사용 사례 등을 의료진에게 소개했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학회를 통해 제품별 임상적 가치를 알리고, 치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JW중외제약 ‘리바로젯’ 2제 복합제 매출 1위

JW중외제약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젯 2/10mg’이 지난 4월 2제 복합제(스타틴-에제티미브) 전체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시장조사전문기관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리바로젯 2/10mg은 지난 4월 기준 이상지질혈증 2제 복합제 전체 시장에서 매출 88억원, 시장점유율 6.59%를 기록하며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매출 84억원, 시장점유율 6.32% 대비 증가한 수치다.

리바로젯은 이상지질혈증 치료 성분인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국내 첫 2제 복합 개량신약이다. 피타바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며 에제티미브는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하는 기전으로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수치 감소에 도움을 준다. /이세경 기자

SK바이오팜, BIO USA서 AI 활용전략 공개

제약기업들과 협력 기회 모색

SK바이오팜은 22~25일 미국 샌디에이고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2026 BIO USA)’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은 이번 행사에서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 및 투자자들과의 파트너링 미팅을 통해 신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부스를 통해 연구 개발과 회사 운영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활용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단독 부스를 운영하는 SK바이오팜은 행사장 내 주

요 전시 구역인 ‘디지털헬스와 AI 존’에 부스를 마련했다. BIO USA는 지난해 디지털 헬스와 AI 기술을 주요 산업 의제로 다루기 위해 해당 구역을 신설하고 행사장 주요 위치에 관련 기업들의 부스를 집중 배치했으며, 올해도 이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의 AI 활용 방향과 확장 가능성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SK바이오팜은 이번 BIO USA에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및 투자자들과의 1:1 파트너링 미팅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개발, 신규 모달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